

34

▣ 들어가며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새대기의 순수함과 열정을 담고 싶습니다.

너무나 옳은 길이기엔 갈 수 밖에 없다는 선배님의 신념을 배우고 싶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지워진 어떠한 짐도 무겁지 않다는 노랫말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한해 더 하다'라는 마음으로!

여학생회 건설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뉘고 있지만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감과 여성이 만들어갈 역사이기엔 승리 또한 예견할수 있는 지금입니다. 앞, 뒤, 옆 돌아볼 것 없이 자주총여 건설! 그 승리의 새역사 창조에 우리의 열정을 다 쏟읍시다.

'자신감 넘치는' 여학일꾼들의 얼굴은 '자주총여'라는 이 네글자를 이만 학우의 가슴에 확신으로 새길수 있습니다. 함 해봅시다.

▣새천년, 여성이 승리하는 새역사 - 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일자

1. 우리에게도 세상을 꿰뚫는 눈이 중요하다

우리는 행사를 하든 투쟁을 준비하든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대동제를 준비하면서 요즘 과학우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술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과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과대동제를 대동체답게 가져갈 수 있는 관건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한다. 과학우들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올바른 투쟁의 상을 세우지도 못하고, 올바른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즉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투쟁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우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적인 정세인식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여학생회 단위에 있어서는 그것이 남의 나라 얘기하듯 멀기만 한 것이 사실이었다. 솔직해지면 학기 중에 진행되는 행사사업이나 투쟁의 사안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지금의 정세에 어떻게 놓일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기 일쑤였다. 이것의 폐해는 힘들다면 굳이 여학생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아니어도 여학생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여학 간부 일꾼들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이상의 폐해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새 천년, 여성이 승리하는 새 역사의 자주적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오류를 다시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한번에 여학생회 단위의 정세 인식력을 높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먹은 못해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노력하자. 10년을 한결같이 1400 여학우의 든든한 벗으로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자주 총여학생회라면 할 수 있다. 투쟁!

2.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세상을 일자

여학간부 일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정세를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가슴한구석 허전함

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제와 애국민중간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애국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정리해놓은 문건 속에는 여성민중의 치열한 삶과 자주적 진출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여학단위가 여성민중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투쟁의 과제를 도출해서 한 목소리로 투쟁의 구호를 외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민중의 현재적 삶을 억압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투쟁과제를 도출해 함께 투쟁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학내에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한계는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우리내 세상을 돌아보자.

3. 새천년, 여성이 승리하는 새역사

1) 여성들은 노동시장과 가정모두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있다.

IMF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여성실업은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올해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남성실업이 너무나 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인지 여성실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조차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정리하고 1순위가 되거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보다는 임시직, 파견직, 용역직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짐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있거나. 임금 배치 승진 성추행 등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 증가하지만 이의 정정을 요구하기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만도 한국통신은 사내커플을 명예퇴직 우선 순위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퇴직을 강요했으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또한 신규채용을 하면서, 전문대졸 이상의 남성은 5급으로, 여성은 학력과 관계없이 6급으로 채용하는 성 차별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은 이후의 임금과 승진상의 성차별로 귀결되어 여성을 승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6월에 발생했음에도 병원측은 이것을 숨기려고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던 사건이 있다. 이것은 한 두개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도 가정 내 성별분업 및 감정노동의 증대와 가정밖 취업활동의 활성화와 숨은 가장 노릇하기 증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의 증가로, 부담과 피해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만도 구두편의점, 봉어빵 장사 등 주부창업이 늘고 있으며, 의류 등 3천 여개 신규개설 체인점의 60%가 주부창업이라고 한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구직문의가 쇠도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구직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압도적이라고 한다. 여성들은 숨은 가장 노릇하기에다가 자신이 생계비를 번다는 것이 혹시라도 남편의 기를 꺾게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해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가정 내 여성의 역할부담과 피해는 커지고 거기에 감정 노동의 부담까지 부과되어 여성은 노동시장과 가정 모두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소중한 일을 하고 노동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내는

소중한 두 가지 역할이 존중받기보다는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여성들은 주저 않아 있는가?

여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자기의 권리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채 이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성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해지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임시직, 일용직으로서 전환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 차별적인 관행 등에 맞서 스스로의 조직을 건설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행 570여명의 여직원들은 한국은행이 남녀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종합직렬과 일반직렬로 구분해 업무와 급여, 직급승진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관리하는 직렬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밤샘 농성과 가열찬 투쟁으로 '신 인사 제도폐사'를 이루어 '남녀평등'을 위한 전일보의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취업을 앞둔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계속적인 구직활동에도 남학생에 비해 취업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신규여성 실업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여성 실업자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는 신규 여성 실업자들의 현실에 근거한 실업난을 해소할 정부의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과 괴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예비 여성노동자인 여대생 취업의 길,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하고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건설을 이루어냈다.

이렇듯 여성들은 자주의 시대, 여성의 권리가 당당해지는 새천년에 굳게 뭉쳐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것은 정권에서 여성 투표자를 고려해 입바르게 얘기하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권의 허구적인 여성정책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순히 남녀교용평등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등의 법적인 제도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올바른 역사 청산 없이 새 천년의 희망은 없다

일본정부와 군대가 아시아의 민중들, 특히 이른바 '위안소'에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된 여성들에게 저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행동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다.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해사, 일본과 우리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권의 외면 속에 정대협이라는 작은 여성단체의 문제제기로 외롭게 시작된 정신대 투쟁을 여기에서 접을 수는 없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것에서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받는 잘못이 저질러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알려내는 것까지 해야 할 일 들은 많다는 것이다.

전성으로 열둑진 20세기를 마감하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21세기를 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위원회를 발족하고 3개 분과를 나누어 "2000년 법정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정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 것이며, 전 세계 여성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 천년의 시작은 가슴아픈 과거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성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성들은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2000년 범정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범정을 준비하는 모임들이 결성되고 있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성소모임, 여학생 위원회 등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정신대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는 힘이 있기에 기이이 정신대 할머니의 숙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철거와 조국 통일 건설'에 관련된 정세는 선본의 토론을 거쳐 작성할 예정입니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도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추후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죄송)